

한국 기독교미술의 전개와 과제*

서성록**

논문초록

1965년 기독교미술인들이 주축이 되어 출범한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는 1979년에 창립된 미국의 CIVA (Christian in the Visual arts)보다 시기적으로 앞선 것으로, 그간 기독교 시각 예술을 확산, 보급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왔다. 본 논문은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 50주년을 계기로 한국 기독교미술의 경과를 맵아기, 형성기, 도약기, 확산기 등 네 시기로 나누어 주요 현안과 작가들, 그리고 미술계에서 어떻게 선지자적 역할을 해왔는지 고찰하였다.

초기의 기독교미술에서는 예수님이 갓을 쓰고 두루마기를 입은 선비로 묘사하는 등 토착적 색채가 농후했으며, 이런 기조는 해방 후에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 기독교 미술은 6,25전쟁의 후유증을 극복하고 사회가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하던 1960년대 중반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가 창립됨으로써 본격화되었고, 1980년대에는 잇단 해외진출과 김학수의 <예수의 생애>, 서봉남의 <영광>, 윤영자의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탑 인물조각>, 김영길의 선교용 회화, 김병종의 <바보산수>가 제작되면서 기념비적인 작품들을 탄생시키는 개가를 올렸다. 1990년대에는 문화운동적 성격을 띤, 일련의 청년미술단체와 기성미술인들로 구성된 '한국미술인선교회', '아트미션'이 출현하면서 기독교미술의 물줄기를 바꾼 시기이기도 하다. 이로써 소재주의와 섹트주의에 연연하던 모습에서 기독교세계관에 입각한 전인(全人)의 표현으로 궤도를 수정한 측면을 보이고 있다.

결론에서는 온갖 담론들이 충돌하는 시대속에서 한국의 기독교 미술가들이 정체성을 잃지 않고 예술적 비전을 확립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기독교미술인들과 목회자들이 현실문화에 지혜롭게 대처하고 기독교적 예술담론의 구상에 보다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점, 둘째 문화개혁에 좀더 관심을 기울이며 기독교예술이 문화의 대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 셋째 미술가들과 교인들이 시각예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질 때 기독교예술이 발전된다는 점, 넷째 기독교미술인들의 전존재를 통해 세상에 참여하는 공공성을 가져야 한다는 점 등을 대안으로 강조하였다.

주제어 : 기독교미술,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 문화참여, 창조질서, 토착화

* 이 논문은 2016학년도 안동대학교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안동대학교 미술학과 교수

2016년 6월 8일 접수, 6월 20일 최종수정, 6월 28일 게재확정

1. 들어가는 말

우리나라 기독교미술가들의 땀줄이나 다름없는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기념전람회를 지난 해 갤러리 미술세계 전관에서 성대히 개최하였다.¹⁾ <한국기독교미술 50년전>에는 서양화, 한국화, 조각, 공예, 서예, 사진 등 각 영역의 200여명 작가가 자신의 작품을 출품하였다. 이 전시에서 흥미로웠던 것은 기존 회원뿐만 아니라 작고 작가의 작품까지 전시하여 지난 50년의 역사를 돌아볼 수 있게 하였다는 점이다. 이웃사랑을 온몸으로 실천한 국민화가 박수근(1914-1965)을 비롯하여, 정감 넘치는 회화세계를 일구어낸 황유엽(1916-2010), 목사로서 기독교미술에 헌신한 이연호(1919-1999), 기독교미술인협회를 성장시키는데 밑거름이 된 이명의(1925-2014), 기독교 회화에 향토적 색채를 입힌 김학수(1919-2009), 천상의 빛을 명쾌한 조형으로 표상한 하동철(1942-2006), 향토적 구상화를 개척한 홍종명(1922-2004) 등 평생을 문화명령을 준수하며 뛰어난 창의력을 발휘해온 작가들을 만나볼 수 있었다. 그런데 눈여겨 볼만한 것은 그것만이 아니었다.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의 창립 5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한국미술인선교회’, ‘아트미션’과 같은 자매단체가 함께 참여하여 관객의 적극적인 호응을 얻어낼 수 있었다. 그들이 보여준 일치와 연합의 정신은 행사진행 중에 얻은 예상밖의 성과이기도 했다.

일전에 미국의 에시버리대학에서 미술사를 가르치는 기독교학자 L, 스트레트포드(Linda Stratford)교수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한국 기독교미술인협회가 출범한 지 50주년이 되었다는 말에 미국의 CIVA(Christian in the Visual arts)²⁾보다 훨씬 앞섰다고 놀라워했는데 비록 미국의 단체보다 규모는 작지만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의 열의는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에 못지않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현대기독교미술의 역사적 흐름을 조망해보고자 한다. 그간 한국

1) 행사는 세 가지, 즉 <한국기독교미술 50년전>(갤러리 미술세계, 2015.9.19-9.29) 개최, 『한국 현대기독교미술 50년』(예서원, 2015) 발간, ‘한국 현대 기독교미술 50년 심포지엄’(장로회신학대학교 국제회의실, 9.29)으로 나누어 치러졌다. <한국기독교미술 50년전>에 관한 리뷰는 서성록 (2015). “기독교미술 반세기에 대한 단상.” 『미술세계』. 9. 116-121. 참조.

2) ‘그리스도인 시각예술 협회’(Christian in the Visual arts)의 비전과 사역에 대해선 다음 사이트를 참고할 것. <http://civa.org/about/history/> ‘그리스도인 시각예술 협회’는 1979년에 창립, 매년 전시회와 학술심포지엄, 연구물을 발간해오고 있다.

기독교미술에 대해선 몇 편의 선행연구, 즉 이연호의 “한국기독교미술과 과제”³⁾, 서봉남의 『기독교미술사』⁴⁾, 정복희의 “20세기 한국기독교미술의 전개”⁵⁾ 등이 있다. 이연호의 “한국기독교미술과 과제”가 신, 구교를 망라하는 포괄적인 내용이라면, 서봉남의 『기독교미술사』는 서양의 기독교미술과 동양의 기독교미술을 포괄한 개론적 성격을 띠었고, 정복희의 글은 90년대 청년작가들의 집단적 미술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기본적으로 한국기독교미술을 주제로 다루고 있지만, 이연호와 서봉남의 경우 제1세대 작가들을, 정복희는 젊은 작가들의 문화사역에 논점을 맞추어 기독교미술의 전체 흐름을 조감하기에는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 50주년을 계기로 그동안 우리나라 기독교미술의 궤적, 각 시대별 이슈와 주요 작가를 돌아보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 II장에선 전사(前史)로서 일본 강점기에서 6.25 전쟁 시기까지 기독교미술의 작품들이 어떤 토착화의 과정을 거쳐 정착되었는지 알아본 다음, III장에선 기독교미술이 발돋움하기 시작한 1960년대에서 1970년대까지의 전개양상, IV장에선 기독교미술이 활성화된 시기와 주요 작품들, V장에선 1990년대와 현재까지의 확산 양상을 고찰해보려고 한다. 이런 전개과정을 점검해본 다음 VI장에선 우리나라 기독교미술의 과제와 향후 대책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II. 맹아기: 일제시대에서 1950년대 중반

기독교미술의 맹아기(萌芽期)는 일본 식민지 시대의 이당 김은호가 조선미전에 기독교미술로 입상한 시기부터 그의 제자인 김기창이 예수 일대기를 제작한 50년대까지를 한 시기로 분류할 수 있다. 기독교가 수용되고 정착하는 과정에서 일제강점, 대동아전쟁, 해방공간의 좌우대립, 6.25전쟁 등 굵직한 사건을 거치면서 기독교미술의 토착화가 주요 이슈로 떠오른 시기이기도 했다.

3) 이연호 (1987). “한국기독교미술과 과제.”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 『한국기독교와 예술』. 서울: 풍만.

4) 서봉남 (1994). 『기독교미술사』. 집문당.

5) 정복희 (1999). “20세기 한국기독교미술의 전개.” 『한국교회의 문화사역 맥 짚기』. 21세기기독교문화포럼 위원회.

개신교 최초의 기독교미술가는 ‘화선(畵仙) 이당’(김인환, 2007: 144)으로 불렸던 김은호(1892-1979)였다. 물론 그 이전에 이희영같은 뛰어난 화가가 있었으나 유존되는 작품이 없기 때문에 어떤 작품을 그렸는지 확인할 수 없다. 전통적 채색기법에 서양화의 사실적 묘사를 접목하여 ‘채색화의 근대화’(송미숙, 2016: 134)를 시도한 김은호는 1924년 조선미술전람회에 <부활 후>(그림1)를 출품하였는데 그의 3등상 수상소식은 우리나라 기독교미술에 한 획을 긋는 일대 사건이었다. 이 작품은 부활한 그리스도 좌우편으로 베드로와 야고보를, 어머니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를 포치한 세 폭 그림이었다.

그런데 첫 개신교 작품으로만 불려오던 이 그림에 대해 최태연은 3.1 운동 직후 우리 민족의 ‘부활소망’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하기도 했다(최태연, 2005: 164-165). 실제로 김은호는 3.1운동 때에 장안에 불길처럼 번지던 만세시위 운동에 합세, ‘조선독립신문’을 돌리다 진압경찰대에 발각, 체포되어 서대문형무소에서 복역한 이력을 지니고 있었다. 당시 수감자들의 형사관결원본에는 그가 “그(손병희 등이 일으킨 독립시위운동-필자 주)에 찬동하고 -- 시위군중을 선도하며 구한국 깃발(태극기)과 횃불을 높이 들고 맹렬히 조선독립만세를 절규”(이구열, 2005: 128-29)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의 행적으로 미루어볼 때 <부활후>를 통해 민족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표현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보인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는 1940년대 전시동원령에 부응하여 일본당국에 협력한 오점도 지녔지만 이와 함께 독립을 위해 몸을 사리지 않는 애국활동도 벌였고 자신의 집(낙청헌)에 가난한 학생들을 숙식시키면서 우리 미술의 걸출한 작가로 키워낸 교육가적인 측면도 동시에 간직하고 있다.⁶⁾ 어쨌든 <부활 후>가 6.25 전쟁 기간에 화재로 소실되자 YMCA의 요청으로 <기독상>(1962년)을 재제작하였는데 이때에는 그림의 날개 부분을 없애고 중앙의 기독상만을 제작하였다. 그 외에도 김은호는 <기도하는 여인>과 <오병이어>란 작품을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재 두 점 모두 찾아볼 수 없다.

이당이 키워낸 제자는 여럿 있지만 그중에서도 운보 김기창(1913-2001)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6) 낙청헌에 들어온 제자들로 백윤문, 한유동, 장운봉, 김기창, 장우성, 조중형, 이유태, 이석호, 허민, 정도화, 김한영, 조용승 등이 있다. 김은호 문하생들은 후소회를 결성하여 활동하였는데 마지막 전시가 되었던 제 6회전의 회원은 무려 40여명에 이른다(송미숙, 2016: 133-169).



[그림1] 김은호의 <부활후>, 미국
프레밍출판사에서 발간한 Each with his
Own(1938)에 실린 사진



[그림2] 김기창, <예수의 생애> 중
'병자 고치다', 1952-53,
비단에 수묵채색

무언(無言)과 불청(不聽)의 장애에도 불구하고 김기창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 없는 탐금질과 뜨거운 예술혼으로 자기개신을 이룬 화가였다. 그는 전후에 청록산수, 바보산수, 십장생, 바보화조, 문자화, 점선 시리즈, 봉걸레그림 등 폭넓은 작품세계를 펼친 명실상부 한국화의 상징적인 대가였다. 그런 김기창 역시 스승을 본받아 예수의 일대기를 제작, 그의 작품세계에 하이라이트를 장식하였다. 그는 6.25 전란 당시 군산으로 내려가 피난생활을 하던 중 29점의 <예수의 생애>를 제작하게 되었는데 훗날 독일 선교사의 권유로 <승천>을 추가하여 총 30점을 완성하게 된다(김기창, 1978). <예수의 생애>는 “민족상잔의 가혹한 현실속에서 그리스도의 수난의 일대기를 구현함으로써 능히 난국을 극복”(오광수, 2014)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주었다(그림2).

김기창은 예수의 생애를 조선시대 풍속적 단면으로 재해석함으로써 예수와 그가 살았던 시대의 상황을 온전히 한국의 인물과 풍속으로 바꾸어놓았다. 이에 오광수는 “기독교의 토착화 현실을 이보다 더 감동 깊게 구현한 예가 어디 있는가”(오광수, 2014) 기술하기도 했다. 김기창은 이 작품을 전쟁이 끝난 1954년 4월 화신백화점내 화신화랑에서 가졌던 <김기창 성화전>에 발표했는데 이 작품을 감상한 후 박계주는 “성화전은 한국이 최초로 가져보는 의의 깊은 일일뿐더러 어느 민족의 대변자거나 한 민족의 소유자가 아닌 인류 전체의 예수를 우리의 생활양식과 풍속으로 표현시켜봤다는 것은 의의 깊은 일”(경향신문 1954.5.2일자. “운보성화전”)이라고 평가하였다. 예수의 탄생과 공생애, 수난과 죽음, 부활까지 그리스도의 일대기를 그려낸 이 연작은 전쟁의 참화로

고통 받던 민족에게 위로와 희망을 선사하였다.

물론 김기창 이전에는 기산 김근준이 이런 시도를 한 적이 있었다. 김근준은 도화원 소속의 공인된 화가는 아니었지만 개항기 원산, 부산, 인천 등지의 개항장에서 조선의 생활상을 그려 외국인에게 큰 호응을 얻었던 풍속화가였다. 김근준은 캐나다에서 온 선교사 게일(James Scarth Gale)이 펴낸 『천로역정』의 42점의 삽화에서 등장인물을 한복과 갓을 쓴 모습으로 표현하였고 또한 천사의 모습도 한국 전설에 나오는 선녀로 바꾸었다(박정세, 2010). 그러므로 토착화를 시도한 최초의 화가는 조선말의 풍속화가 김근준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가톨릭 화가 장발(1901-2001)은 한복의 코스튬을 한 사도나 순교자를 그렸고, 배운성(1900-1978)의 성모자상 <여인과 두 아이>(1930년대) 역시 한국의 전통가옥과 수목을 배경으로 한복을 곱게 차려 입은 마리아와 색동 옷을 입은 아기 예수가 등장하며, 월전 장우성(1912-2005)이 제작한 <순교자의 모후 3연작> 등 대부분은 선배작가들과 마찬가지로 토착적 관점에서 성경적인 인물들을 다루었다.

왜 이들 화가들은 예수님을 그릴 때 우리의 산천을 배경으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포를 입고 갓을 쓴 모습으로 표현했을까? 이것을 혼합주의로 볼 것인지 복음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런 현상으로 볼 것인지 의견이 엇갈릴 수 있을 것이다. 이점을 파악하기 위해선 ‘착한 목자’(눅 15:1-7, 요 10:7-16, 시 23편) 도상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교회미술에서 가장 오래된 예수도상은 시리아 두라 에우로포스(Dura Europos, 231년경)의 회당 유적에서 발견되었는데 거기에 예수는 양을 둘러매고 돌아오는 모습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그후 ‘착한 목자’ 도상은 3세기초 칼리투스(Callixtus) 카타콤, 바티칸미술관에 소장된 4세기 대리석 작품 등으로 이어져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온다. 모든 예술이 시대의 영향을 받듯이 이 작품 역시 그리스와 로마의 영향을 받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쥬피터(Jupiter)처럼 아름답게 형상화되었으며, 헤르메스(Hermes)는 초기 기독교미술인들에게 ‘착한 목자’ 도상을 위한 모델로 사용하였다. ‘착한 목자’ 도상에서 예수가 항상 젊고 얼굴이 둥글며 수염이 없고 짧은 머리를 한 소박한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은 이와 연관이 있다(정웅모, 2006: 79-80). 예수님을 상징하는 ‘착한 목자’의 도상이 그리스 로마 문화의 문화적 환경에서 발생하였듯이 한국에 전래된 기독교 역시 초기에 한국의 토양에서 한국인의 문화적 콘텍스트로 해석되었음을 알 수 있다. 토착화 자체에 경도되어 기독교 본질을 해치는 것을 경계해

야 하겠지만, 이런 적응의 과정에서 우리는 기독교의 문화적 정체성이 뚫고 들어갈 수 없는 성벽같은 것이 아닌, 항상 소통을 위해 열려있어야 하며, 투과성을 지녀야 함을 보여주었다(Volf, 2014: 141).

이은선은 기독교의 수용과정에서 보인 토착화 현상을 “혼합주의적인 표현이라기보다는 당시 조선인의 정서에 맞추어 전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이은선, 2012: 254)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즉 한국인들이 기독교에 대한 이질감을 줄이고 친근감을 높이려고 했다는 것이다. 1923년 한국에 진출한 미국의 메리놀 선교회가 선교지의 문화풍토에 맞추어 ‘토착화를 가장 대담하게 시도’(정성은, 2006: 25)하였다거나 선교사 게일(James Scarth Gale)이 김근준으로 하여금 천로역정의 주인공을 조선인으로 표현하게 했다는 사실 등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준다. 한국선교의 개척 당시 선교사들이 채택한 네비우스(Nevius)의 선교정책(The Nevius Plan), 즉 “본토인으로 하여금 자력으로 교회건물을 짓게 하되 건축 양식은 본토식으로 한다”는 방침 역시 한국인의 정서를 배려한 전략이 아닐 수 없다(백낙준, 1973: 170). 훗날 이연호는 이러한 토착화의 시도에 대해 “모든 예술이 향토성을 지님으로써 더 빛을 발하게 된다(이연호, 1986: 95)”고 밝히고 우리나라의 풍속과 정서를 담아내는 것은 긍정적이라는 입장을 견지하였다(이연호, 1986: 95).

Ⅲ. 형성기: 1960, 70년대

1960년대에 들어오면 개신교 화가들의 작품발표가 부쩍 늘어나는데 이 시기는 신앙적인 작품발표가 잦아지고 기독교작가들의 거점이 된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의 창립으로 요약될 수 있다. 기독교인이었던 김은호 문하의 김기창(1913-2001), 김학수(1919-2009), 안동숙(1922-) 등이 기독교미술의 일원으로 맹활약하였고, 게다가 황유엽(1916-2010)은 <창작미술협회전>, 이명익의 <현대미술가협회전>, 정규(1923-1971)와 박수근(1914-1965)은 <한국판화협회전>에 참여하면서 저력을 과시하였다. 박수근(1914-1965)의 경우 생활고(生活苦)와 병고(病苦) 속에서도 미국 샌프란시스코 미술관에서 열린 <동서미술전>(1957), 뉴욕 월드하우스갤러리의 <한국현대회화전>(1957), 동경과 서울에서 열린 <국제자유미술전>(1961, 1962), 홍콩 인터내셔널 호텔 인터하우스 초대 전람회

(1962), 주한미공군사령부 SAC 도서관의 <박수근 특별전>(1962)에 출품하는 등 그의 명성은 국내를 넘어 해외로 뻗어갔다(그림3).

이같은 기독교미술의 강세는 개인의 뛰어난 역량 탓도 있었겠지만 구조적으로 본다면, 교계와 화단의 내부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교계의 입장에서 본다면, 60-70년대 심령부흥회와 부흥사경회 등에 힘입어 기독교의 교세가 확장되었으며, 이에 따라 크리스천미술가도 증가하였다(정복희, 1999: 12).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가 창립하게 된 것은 그만큼 사회적 분위기가 무르익었기 때문이다. 전쟁의 후유증이 어느 정도 가라앉고 사회가 안정을 되찾으면서 전람회도 잦아졌는데 이 무렵에는 <국전>, <현대미술가초대전>, <문화자유초대전> 등 어느 때보다 미술계에 활기가 넘쳐흘렀다. 여러 전람회가 연쇄적으로 열리는 상황에서 그리스도인 미술인들은 기독교의 정체성을 표방할 수 있는 미술단체의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다.

60년대를 전후로 한 기독교미술가들의 작품활동에 대해서 이연호는 “한국 기독교미술의 과제”⁷⁾에서 소상히 밝혔는데 이것을 간추려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김기창의 그리스도 일대기를 비롯하여 혜촌 김학수의 풍속화적 성경그림, 윤정 김홍종의 한국성탄 풍속화가 세계 47개 국어로 발간되는 『다락방』 표지화(1968년 2월호)에 실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홍종명의 책형도, 이명희의 추상표현주의적 양식의 접목, 신영현의 초현실주의적 화면구성, 국전 최고상을 수상한 박종배의 <역사의 원>, 김영길의 대담한 구도와 수법으로 선보인 <성탄화>와 <성모자>, 최병상의 <선지자의 눈물>, 윤영자의 <성모자>, 김정숙의 부조작품 <힘의 군상>(YMCA 회관)과 <출애굽>(기독교회관), 장운상의 <한복을 입은 예수>(1962, YMCA 소장)와 <탕자>(1967), 마네시에르(Manessier)를 연상시키는 이정수의 추상화, 천병근의 <기도>(1961), 김영재의 <예수 수난의 언덕>(1968) 등 그 어느 때보다 기독교 미술인들이 왕성한 창작활동을 펼쳤다. 이런 예술가들의 움직임은 전쟁과 빈곤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가져다주려는 생각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며,⁸⁾ 그런 연장선상에서 한국기

7) 자세한 내용은 이연호(1987)의 “한국기독교 미술과 과제”를 참고할 것, 이외에 여러 화가 및 조각가들을 소개하였으나 본고에서는 주요 작가만을 요약하였음.

8) 이미 1954년에 가톨릭과 개신교를 초월해서 서울 미도파백화점 화랑에서 <성미술전>이 열렸는데 이 전시에 대해 “전란으로 황폐한 이 땅에 세기적인 불안과 공포의 한가운데에 거룩한 것을 표현하기 위한 미술전이 소규모로나마 제1보를 내디디었다는 것은 그 역사적인 사명과 아울러 생각할 때 감개무량한 바 있다”(경향신문 1954.10.9일자. “미술 융화된 미감.”)고 기대를 감추지 않았다.

독교미술인협회가 창립된 것으로 파악된다. 협회가 창립된 지간의 사정을 1963년 이화여대에서 열린 ‘한국기독교 교육대회’에 즈음하여 마련된 초대전에서 찾아볼 수 있다.

“1963년 제5회 한국기독교 교육대회가 이화여대에서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김기창, 홍종명, 김기승, 김학수, 윤중식, 천병근, 이철경 초대전이 계기가 되어 1963년 10월부터 YMCA 회관 준공과 더불어 초대전이 있었습니다. 1965년 1월 18일 기독교교육협회 회의실에서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 창립대회가 열렸어요.”(이연호, 1995: 20)



[그림4] 박수근, 실직, 41×21.5cm, 캔버스에 유채, 1960



[그림3] 이연호, 1950년대 이촌동풍경, 130×162.5cm, 캔버스에 유채, 1950년대

위의 언급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없지만 협회의 창립에 앞장 선 사람은 이연호였다. “협회가 생길 때 제일 먼저 만들어졌으면 하고 하신 분이 이연호 목사님이라고 생각되요. 기독교 교육대회 때 초대됐던 계기로 얼마 후에 우리나라도 이런 협회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동기가 되었지요(이명희, 1995: 21).” 이명희의 발언으로 짐작해볼 때 제5회 ‘전국기독교교육대회’가 열릴 때 처음으로 단체구성의 필요성을 역설한 인물이 이연호였고, 그의 주도하에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가 설립된 것으로 이해된다.⁹⁾

9) 이당 김은호와 원곡 김기승, 이명희의 역할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당과 원곡은 한식집 일역조에서 회합을 가질 때 빠짐없이 참석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당은 기금을 내어주는 등 협회의 재정적 지원을 해주었고, 이명희는 향린미술원을 협회 사무실로 내놓으면서 “옥동자의 산과 역할”(김영재)을 맡았다. “창립 40주년 기념특별좌담.”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 (2005).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 40년사 1966-2005』. 9-14.

이연호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목회자이자 화가였던 그의 독특한 위상 때문이었다. 이연호는 교계와 미술계의 사정에 정통했으며 이 둘 사이에 가교를 놓을 수 있었던 적임자였던 셈이다(그림4). 이연호는 전국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이는 ‘전국기독교 교육대회’를 그리스도인들의 작품세계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적기로 생각했던 것이 분명하다. 기독교미술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절실히 느꼈던 입장에서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을 것이다. 더욱이 한국개신교 7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열리는 행사이니만치 초대작가도 명망있는 기독교미술가들로 정했다. 이때 전시에는 동양화의 김기창, 김학수, 서양화의 홍종명, 윤중식, 이명의, 천병근, 한진수, 서예의 김기승, 이철경 등이 초대되었다.

회원들은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제1회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전>을 1966년 신문회관 화랑에서 12월 5일부터 11일까지 가졌는데 이때 협회 산하에 동양화부, 서양화부, 서예부, 조각부, 공예부, 건축 등 6개 부문을 두었다. 흥미롭게도 창립전에는 가톨릭과 개신교 미술가들이 자리를 함께 하였다. 출품작가로는 김은호, 김기창, 김학수, 김홍중, 서세욱, 안동숙, 장운상, 문 일(이상 동양화), 김상성, 김순연, 김인승, 김영재, 박득순, 박연도, 신영현, 김익란, 이광혁, 이명의, 이연호, 이정수, 정문규, 홍종명, 황유엽(이상 서양화), 권길중, 김정숙, 윤영자, 이순석(조각 및 공예), 김기승, 문 일, 이철경(서예) 등이다. 또한 창립전에는 일본의 다나카 다다오(田中忠雄), 니시자카 오사무(西阪修)와 와다나베 사다오(渡邊禎雄), 인도의 프랭크 웨슬리(Frank Wesley), 그리고 대만의 서기금(徐綺琴) 등 아시아 기독교 작가들이 찬조 출품하여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의 출범을 축하해주었다. 이들 작가들의 참여는 평소 친분이 있었던 이연호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이연호, 1993: 186-187).

그러나 관심을 모았던 신, 구교 미술인들의 유대감은 얼마 지나지 않아 깨지고 말았다. 서세욱, 김인승, 이순석, 박득순, 박연도 등 가톨릭 화가들은 제 3회전을 마치고 분리되어 나감에 따라 그 이듬해인 1969년 제4회 전시회에는 개신교미술가들만의 전시회로 꾸며질 수밖에 없었다. 이후 가톨릭 미술가들은 서울 가톨릭미술가협회를 창립하고 1971년 신세계 화랑에서 전람회를 가진 이후 1972년 제 2회전, 1975년 제 3회전, 1976년 제 4회전 등을 개최하였다(방오석, 1976: 43). 가톨릭 미술가협회에는 문학진, 박득순, 김 태, 김세중, 권영우, 서세욱, 정창섭, 김종영, 최종태 등 서울대 출신의 작가들이 참여하였는데 이는 가톨릭미술가들이 가톨릭 신자였던 서울대의 장발 교수를 정

점으로 움직였다는 표시로 읽힌다.

제 4회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전은 1969년 신문회관에서 개최되었는데 가톨릭 화가들이 불참하면서 개신교 미술가들만의 전람회로 치루어졌다. 이때부터 협회전은 지금과 같은 개신교 작가들의 모임으로 굳어진 셈이다. 참여 작가의 면면을 보면 김상성, 김순연, 김영재, 김익란, 박연도, 신영현, 선종원, 이연호, 이동웅, 이정수, 이명의, 정규, 정재명, 홍종명, 황유엽(이상 서양화), 김기창, 김영기, 김은호, 김학수, 김홍중, 문 일, 박수현, 안동숙, 이덕인(이상 동양화), 김정숙, 윤영자, 진송자, 김기연(이상 조각), 김기승, 이철경, 조병숙(이상 서예), 김용훈, 서삼순, 윤세선(사진) 이외에도 다나카 다다오, 니시자카 오사무, 와다나베 사다오 등이 출품하였다.¹⁰⁾

60년대가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의 태동기였다면, 70년대에는 잇단 명화전으로 기독교문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킨 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그같은 분위기는 여러 기독교화가들의 명화전에서 찾아진다. 1969년 서울장로회 신학교와 협회의 공동주최로 <렘브란트탄생 300주년 기념작품전>이 신문회관에서 열렸다. 암스테르담미술관에서 대어해온 이 작품들은 비록 복제품이긴 했지만 종교개혁의 정신을 구현한 렘브란트의 작품을 직접 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신선한 자극제가 되었다. 그밖에도 1971년 뒤러 탄생 5백주년을 기념한 전람회가 한독문화관에서 열린 것을 비롯하여 <샤갈전>, <밀레전>, <유럽 이콘전>, <로댕전>, <미켈란젤로 조각전> 등 굵직한 명화전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뒤러, 렘브란트, 밀레, 샤갈과 같은 전시는 기독교 미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신앙과 예술이 얼마나 밀접한지 확인시켜주는 자리이기도 했다.

한편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는 국립공보관 화랑, 미술회관, 미도파백화점 화랑, 코스모스 백화점화랑, 선화랑 등에서 정기전을 개최하며 회원들의 결속과 보급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 무렵 1971년 37명이던 회원은 1984년 63명에 달해 두 배에 가까운 팽창을 보였고, 명망 있는 중견작가들의 참여로 질적인 향상을 이루었다. 회원들은 <요나의 수난>(이명의), <엠마오로 가는길>(김학수), <기도>(김영길), <언덕위에 선 교회>(표승현), <교회가 보이는 풍경>(정재규), <산상수훈>(신영현), <교회가 있는 풍경>(이양로), <베드로를 부름>(김수익), <골고다의 황혼>(이정수), <오월의 예배당>(이연호), <계시록>(장광식), <최후의 만찬>(장완), <기도>(천병근) 등 기독교적 주제 또는

10) 역대 출품 작가에 대해서는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 40년사 1966-2005』에 수록되어 있는 “회원전 출품작가현황”(15-23)을 참고할 것.

신앙고백적인 내용이 기초(基調)를 이루었는데 이것은 삶의 전반에 대한 기독교적인 이해를 표현하였다기보다는 종교화라는 전통적인 개념에 따랐다는 표시로 이해된다.¹¹⁾

IV. 도약기 : 기독교 전래 1백주년

1980년대는 기독교미술이 도약해간 시기이다. 국내작가의 해외진출, 기독교전래 1백주년 기념행사와 몇몇 작가들의 역작 발표 등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다.

이에 따라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도 1980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전시도록을 발간하고(1980년), 원곡, 혜춘미술상 제정(1979년), 한국기독교미술상 제정(1987), 공모전개최(1985) 등 보다 활발한 사업을 펼쳤고, 작가들의 해외교류도 자주 이루어졌다. 1984년에는 홍종명, 이춘기, 김재임, 박정근 등이 필리핀 로스바뇨스(Los Banos)에서 개최된 ‘제 2회 아시아 그리스도인 미술가협회 컨퍼런스’(ACAA)에 참여하였다. 이 컨퍼런스를 개최한 ‘아시아 그리스도인 미술가협회’(Asian Christian Art Association)는 1978년 일본인 화가이자 신학자인 마사오 다케나카(竹中正夫)가 “아시아권의 그리스도인 미술가들과 신학자들이 이념을 교류하기 위해” 창립되었는데 이 협회의 기관지 『이미지: 아시아의 그리스도와 미술(Images: Christ and Art in Asia)』에 이춘기와 김재임의 작품이 실리기도 했다.¹²⁾ 컨퍼런스에 참석한 박정근은 “아시아 각국에서도 기독교미술이 특유의 성격을 띠고 발전함을 알 수 있었으며 기독교미술의 중요성을 깨닫게 한 의미 있는 회의”였다고 소감을 피력하였다(박정근, 1996: 106). 그런가 하면 안동숙, 안석준, 오해창 등은 1986년 아시아 그리스도인 미술가협회가 주최한 <아시아의 기독교미술전>(Christian art in Asia)에 초대를 받아 유럽과 북미, 하와이를 순회하는 전람회에 참가하기도 했다. 이 순회전에는 안동숙의 <그레이스플(Graceful)>, 오해창의 <웃는 예수>, 이춘기의 <Work 58> 등이 출품되었다. ¹³⁾

무엇보다 이 시기에 주목되는 것은 한국기독교 백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기념전을

11) 작품내용이 이처럼 소재 중심으로 바뀐 것은 1973년 빌리 그래함 전도대회, 엑스포로 74 대회, 77년 민족복음화 대전도집회 등 민족복음화운동과 급속한 교회성장이 이루어지면서 예술품을 ‘전도의 한 방편’으로 이해한 교회의 태도와 무관하지 않다.

12) <http://www.asianchristianart.org/index.htm>. (검색일 2016.3.12)

13) <http://www.asianchristianart.org/mag1986.htm#image27>. (검색일 2016.3.12)

개최하였다는 사실일 것이다.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는 ‘한국기독교 100주년기념사업협의회’(한경직 총재)의 후원을 받아 아시아 11개 지역 개신교 미술가들을 초청, 12월 18일부터 86년 1월 5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국제미술전과 협회전을 개최하였다. <국제기독교미술전> 도록에서 아시아 그리스도인 미술가협회 회장인 마사오 다케나카는 “기독교의 신앙을 토착적인 예술로 표현하려는 노력이 아시아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기독교의 복음은 단순히 언어를 통한 전달이 아니라 삶과 일의 전부를 통해서 더 잘 전달될 것”(『국제기독교미술전 성화대전』 도록, 10)이라며 기독교미술에 대한 기대를 표시했다. 동시에 협회는 창립 20주년을 겸한 전시를 개최하였는데 여기에는 130여명의 회원이 참여하였다. 당시 회원들은 뜻깊은 백주년 기념전람회가 되게 하기 위해 ‘이스라엘 성지를 순례하여 스케치를 하는 등 심혈을 쏟았고’(홍덕선, 1986: 150) 그 어느 때보다 양적으로 풍부했을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수준 높은 기독교미술전이 되도록 애썼다. 그 결과 “기독교미술전을 통해 성서적인 작가가 속출, 명실공이 한국 기독교미술계에 획기적인 변화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홍덕선, 1986: 150)



[그림5] 서봉남. <영광>. 캔버스에 유채, 1982-84

한편 기독교 미술인들은 믿음의 유산을 뒤돌아보게 만드는 기념비적인 작품을 발표하였다. 혜촌 김학수의 <예수의 생애>와 기독교풍속화 연작, 그리고 서봉남의 <영광>, 윤영자의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탑 인물조각, 김영길의 선교용 회화, 김병중의 수목으로 된 <바보예수> 연작이 그러하다. 앞의 전람회가 기념적 성격의 전람회였다

면, 이 네 작가의 작품은 기독교 미술가의 역량을 집약하는 것이었다.

풍속화가 헤촌 김학수(1919-2009)는 예수의 탄생에서 부활까지 36점으로 구성된 <예수의 생애>란 연작을 발표하였는데 이 작품에서 주목되는 것은 등장인물과 배경의 설정이다. 주막집 마굿간에서의 예수 탄생, 예수의 할례장면, 예수의 성경토론장면, 장님이 눈을 뜬 사건, 어리석은 부자, 간음한 여인의 용서, 가나의 혼인잔치, 산상수훈, 최후의 만찬, 골고다 십자가, 부활장면 등 성경의 어느 장면이더라도 우리 전통마을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그의 그림은 그다지 낮설지 않다. 그의 모든 작품들은 유대의상을 입은 예수가 조선에 임재한 듯한 모습으로 표현하여 친근감을 주도록 했다. 또한 그는 2년간 제작한 기독교 역사풍속화 50점을 발표하였는데 역사풍속화는 기독교가 이 땅에 전래된 후 선교, 순교, 박해, 전도, 의료, 교육사업 등으로 압축되는 기독교 전래의 역사를 재현한 것이다. 아펜젤러와 언더우드의 제물포 입항 장면, 최초의 황해도 솔내 교회, 정동교회, 새문안교회, 현대식 병원인 광혜원, 배재학당, 이화학당 등 옛 모습을 그만의 필치와 풍부한 농담, 치밀한 묘사로 재현하였다. 당시 기사에 의하면, “그의 작품은 단순한 그림 그리기가 아니라 기록화란 차원에서 학문적 고증작업이 곁들여 져고 여간한 역사의식 없이는 보기 힘든 것이었다”(경향신문 1985.9.9일자. “풍속화가 김학수씨 2년간 심혈, 한국기독교 100년 화폭에 재현.”)고 소개했다.

성경을 주제로 한 작품을 꾸준히 제작해온 서봉남(1944-)은 개신교 100주년을 기념하여 그의 대표작 <영광>(그림5)을 발표하였다. 이 유화작품은 제작기간만도 2년 6개월이 소요되었으며 가로가 8미터, 세로가 4미터에 이르는 작가의 화혼을 불사른 역작이다. 작가는 화면을 세 파트로 나누어 한국교회의 어제, 현재, 한국교회의 미래를 각각 실어냈다. 화면 왼편의 한국교회의 어제는 고문과 총살을 당하는 초기 기독교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많은 성도들이 쓰러져가는 모습을 짙은 청색으로 처리하였다. 그런가 하면 화면 오른편의 한국교회의 미래는 희망차게 표상하고 있다. 한반도의 성도들이 촛불을 들고 길게 늘어서 있고 이들의 행렬 주위로는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데 해외선교를 통한 부흥을 암시하고 있다. 화면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십자가 주위에 운집한 남녀 청년들이 그리스도를 높이며 찬미하는 것이다. 배경에는 5백여 명의 찬양대원들이 합성을 지르듯 노래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다. 하늘에서도 천사들이 내려와 이들의 찬송과 즐거움에 화답하고 있다. <영광>은 여러 시제의 동시적 설정 외에도 한국기독교가 걸어온 길과 앞으로 나갈 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기독교 미술에 길이 남을 명작으로 손꼽을만하다(“서봉남화백의 성서화집.” 2011: 79-83).

“기독교미술은 소재부터 매우 서양적이라고 할 수 있다. (---) 그런데 김영길 화백의 그림은 성경의 메시지를 동양적인 필치로 선명히 그려 누구에게나 친근감을 느끼게 해준다.”(기독신문 1997.4.6일자.) 이 글은 제11회 대한민국기독교미술상 수상자인 김영길(1940-2008)의 <탕자의 비밀>에 대한 안동숙의 심사평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수상자 김영길은 기독교회화만을 무려 5백여점을 제작하였으며, 부산을 무대로 하여 세계기독교미술관을 설립하고 사재를 털어 ‘소금의 집’ 교회를 비롯하여 7개의 교회를 개척하는 등 복음 전파에 헌신한 대단히 실천적인 화가였다. 그가 집필한 『자다가 깰 때라』(김영길, 1988: 341-362)를 보면, 80년대 말까지 3백 여 점의 대작을 제작했으며 국내외 집회, 부흥회, 세미나 등에서 1천여회 이상 발표회를 갖기도 했다. 대부분의 작품은 집회용으로 제작하였는데 이중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공중에 나는 새와 들에 핀 백합을 보라>, <십자가 그늘 밑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겸손의 주님>, <평화>, <헌신>, <대화>, <감사>, <고난>, <부활>, <재림> 등이 있다. 이 작품들은 성경의 내용을 단순히 도해한 것이라기보다 그가 깨달은 복음의 깊이를 풀이한 것으로 음영대비와 면구성이 두드러진 특성을 지닌다(김영길, 1995).

윤영자(1924-2016)는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탑의 인물상을 제작하였다. 건축가 윤재원이 한국교회의 전통적인 종의 모양을 본 따 높이 17미터의 기념탑 설계를 맡고 조각가 윤영자가 기념탑의 브론즈 인물군상과 벽부조물들을 맡은 것이다. 윤영자는 조각상의 건립 취지에 맞추어 자신의 평소 방식인 유기적인 스타일 대신 사실적인 표현 기법을 사용하여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한국 땅을 밟은 언더우드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의 입성장면과 그들의 간절한 기도장면을 각각 표현하였다. 이 기념조각은 8개월여에 걸쳐 제작하였으며 1986년 인천 항동에서 제막식을 가졌는데 윤영자는 이 작품에 대해 “현재도 앞으로도 영구히 늙름한 모습으로 하늘을 우러러보며 건재할 것이다”(윤영자, 2011: 117)며 소회를 밝혔다.

한편 김병중(1953-)은 80년대 중반부터 일련의 수난 연작을 발표했다. 그의 수난 연작은 <바보 예수>로 명명되었는데 대표작으로는 <바보예수 - 엘리엘리 라마 사막 다니>(1985)를 비롯하여 <육은 메마르고>(1985), <목이 꺾이다>(1986), <붉은 예수>(1987), <무덤 앞에서>(1988), <검은 성자>(1989), <흑색예수>(1987), <황색예수>

(1985), <인자>(1989), <바보예수>(1985, 1986, 1988), <달빛 예수>(1987), <빗발치다>(1989) 등이 있다. 그의 작품은 모욕과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며 죄인들을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의 수난과 희생, 사랑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타이틀 <바보예수>에서 볼 수 있듯이 자신을 대속물로 바친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강조하였다. 또한 그리스도를 목수, 황인, 흑인, 인자 등으로 표현함으로써 인종과 지위에 상관없이 모든 인류를 구하러 오신 분으로 묘사하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그의 작품은 후에 독일 구아르드 미술관, 프레데라키아 갤러리, 헝가리의 기욤시립미술관과 폴란드의 베스티루르 갤러리에서 순회전시를 갖기도 했다. 그의 전람회를 본 독일의 에크하르트(Eckhart)는 “제3세계의 분노나 민중의 정서를 바탕에 깔고 있지만 따듯함으로 승화되는 모습”(Eckhart, 2014: 219)을 지녔다고 평하였다.

이처럼 1980년대는 한국기독교 100주년을 맞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국제기독교미술특별전>과 <제20회 정기전> 그리고 김학수, 서봉남, 김영길, 윤영자, 김병중 등 몇몇 기독교 미술가들에 의해 풍성한 작품의 결실이 맺어졌다. 김학수의 <한국기독교역사화 및 예수 성화>가 한국기독교미술사에서 ‘획기적인 거사’(이연호, 1987: 164)라는 극찬을 받았다면, 서봉남의 <영광>은 ‘한국교회의 괄목할만한 발전과 부흥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작품’(정재규, 2004: 66)이며, 김영길의 그림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케리그마적인(Kerygma) 작품이었다. 윤영자의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탑> 조각은 한국을 복음의 땅으로 변화시킨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의 내한장면을 담은 기념비적인 작품이었고, 김병중의 수난그림은 낮은 곳에 오셔서 고난 받으신 예수님을 보여줌으로써 1980년대 한국사회의 딜레마와 아픔을 위로하시는 분으로 해석하였다.

V. 확산기: 1990년대와 그 이후

1990년대는 기독교미술의 물줄기를 바꾼 시기라고 말할 수 있다. 그 두드러진 양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첫째, 젊은 작가들의 움직임, 둘째, 한국미술인선교회와 아트미션의 창립, 셋째 개교회중심의 미술선교회의 조직이다. 유일한 기독교단체였

던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 위주에서 몇 지류(支流)로 분화되는 등 다변화된 양상을 목격할 수 있는데 이것은 교인의 증가에 따른 현상으로도 볼 수 있겠으나 지각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들의 참여에 따라 기독교예술의 층위(層位)가 한층 두터워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90년대 이후의 기독교 미술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우리는 90년대 문화 전반의 동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90년대는 서구문화의 토대라고 할 수 있는 이성주의적 사고체계를 불신하고 근대문명에 대한 회의가 포스트모더니즘의 기류를 타고 국내에 상륙한 시기이며 이 사조는 민중미술과 모더니즘 사이에 고민하던 국내의 미술인들에게 뜨거운 화제가 되었다. 거대담론의 비판에 따른 다원주의와 개방적인 사고는 타자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져다주는 등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윤리나 가치 문제를 누락한 문화라는 인식을 심어주었다. 새 천년 전후로 일어난 ‘문화이론’은 대중문화와 연결되어 예술계를 강타했는데 분명한 개념과 역사적 맥락에 대한 감각을 결여한 채 서구 좌파문화이론을 수용하여 기존의 문화개념과 사회질서의 변혁에 앞서 나서기도 했다(신국원, 1996: 30). 한국사회의 문화는 이렇듯 가히 폭발상태에 있었으나 정작 교회는 이러한 변화에 대해 수수방관한 채 ‘문화의식의 총체적 부재’(신국원, 1996: 32)를 드러냈다.

이에 젊은 예술가들은 급변하는 문화를 외면한 채 과거에 집착하는 행태에 대해 비판적이었으며, 현재의 문화에 책임감을 느꼈다. 교회의 미래에 대한 비전부재와 문화전략의 부재를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이 지점에서 오의석은 그리스도인 미술가들의 인식변화를 촉구한 바 있다.¹⁴⁾ “지난 한 세기를 돌아볼 때 우리는 미술문화의 전장으로부터 너무 멀리 후퇴하여 있었다. 기독교 미술은 종교미술의 하나로 자리매김되어 미술의 한 구석을 지켜왔다. 이제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며 교회의 보호와 도움속에 몸을 숨기며 지체할 때가 아니다. 세속화한 미술이라고 외면해버릴 것이 아니라 뛰어들어 개혁하고 회복시키는 일들이 일어나야한다(오의석, 1996: 193).” 오의석은 조각가이자 이론가로서 미술현장에 있으면서 누구보다 실천적인 예술론의 필요성

14) 기독교세계관에 기초한 오의석의 다음의 논고들을 참조할 것, 오의석 (1992). “성경적 조형관.” 『통합연구』. 14; 오의석 (1993). “현대기독교미술과 세계관.” 『통합연구』. 18; 오의석 (1996). “창조, 타락, 구속의 미술 - 미술에 대한 기독교세계관의 조명.” 한국미술인선교회편. 『기독교와 미술』.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을 절감해왔던 것 같다. 그렇기에 그는 현실문화에 참여하고 개혁하며 대안의 소리를 내는 것을 강조해왔다. 그리고 침예한 담론들이 오가는 현대미술속에서 기독교인으로서 분명한 정체성, 즉 기독교 세계관을 갖고 문화의 전쟁에 임할 것을 촉구하였다. 기독교미술이 중세미술의 역할을 떠안는 것에 반대하면서 “세상문화의 도전으로부터 교회가 자신을 지키고, 나아가서 세상의 문화를 변혁시키기 위해서는 교회가 문화적 관심과 이해를 높이지 않을 수 없다(오의석, 1996: 129).”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건잡을 수 없는 예술생태계의 오염과 그 폐해의 심각성은 미술가들을 기독교미술에 참여하고 대안문화를 모색하게 만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급변하는 문화와 이에 대한 기독교인의 대처는 젊은 작가들에게 적잖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해된다. 젊은 작가들은 문화 형세의 시급성에 따라 문화운동적 성격을 띠었으며 현실문화의 참여와 안으로부터의 개혁에 박차를 가하였다. 기존 기독교미술이 현실문화와 괴리되어 있다고 여긴 젊은 작가들은 “보다 적극적이고 치열하게 미술계와 문화계에 도전하고 대안을 연구하는 모임”(정복희, 1999: 14)을 조직하였는데 낮은 울타리의 CUE(미술분과), 서울대 ‘프로클레임’과 홍대의 멀티슬라이드 영상제작팀 ‘하늘그림자’, IVF 예술조, ‘엑수시아’, ‘기독교미술연구회’, ‘기독교 현대미술연구회’, ‘기독교 미술비평연구회’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1990년대 들어서면서 작품 경향 또한 변화를 가져왔다. 우선 사회적 발언 형식의 작품들도 늘어나고 성경을 테마로 그리지는 않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리는 감격과 기쁨, 일상사에서의 관심 등을 작품으로 제작하는 사례가 급격히 많아졌다. 포스트 모더니즘이 사회에서 엄청난 화제가 되고 문화 전반에서 발견되는 현상들을 볼 수 있을 때 한국교회는 사실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용어 자체에 낯설어 하고 어떤 경우에는 극단적인 거부감을 표명하는 사태까지 있었는데 이 와중에 기독교미술연구회나 기독교 현대미술 연구회 등의 회원들은 오히려 포스트 모더니티를 적극적으로 조형어법으로 활용하기도 했다(조현화, 2007: 84).”

조현화의 언급에서 보듯이 기독교미술이 사회와 문화를 외면하지 않고 참여한다는 것은 사회와 문화의 본질을 꿰뚫어 그리스도인이 제 목소리를 냄으로써 적극적으로 대처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속을 문화적으로 의미있는 사건으로 이해할 때 문화는 창조의 소극적 보존이나 구속에 대한 준비라기보다는 현재의 갱신에 관심을 둔다(신국원, 2002: 126). 그러므로 현재의 갱신은 지배문화에 대한 이해 및 분석없이 그것의 갱신 또한 예상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림6] 홍순모,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30×25×38cm, 수성암, 2013



[그림7] 정해숙, 투영(열린 길),
Projection(Open Road), Oil on
Canvas, 130.3×130.3cm, 2001

여러 모임이 조직되면서 크리스천 작가들의 잦은 만남이 이루어지고 전시와 토론회가 열렸다. 미술단체의 규모가 커지자 ‘기독교미술단체연합’(CAGO)을 조직하고 미술문화캠프를 개최하여 기독교세계관에 입각한 조형예술을 모색하는데 노력했을 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 유사한 모임을 태동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정복희, 1999: 15). 그러나 이들 단체들은 안타깝게도 단명에 그쳤다. 기존 미술인들에 대한 자성의 시각도 있었고, 기독교미술에 대한 남다른 열의도 있었으나 뚜렷한 예술적 성과를 내지 못한 채 흐지부지되고 만 것이다. 하지만 ‘교회 울타리 안에서만 존재’(정복희, 1999: 13)했던 그리스도인들의 미술을 현실문화와 삶속에서 구하려고 애썼던 점은 주목할만하다.

특히 1990년대 초에는 기독교미술 양서(良書)가 출판되어 작가들과 청년들에게 문화갱신에 대한 비전을 심어주었다. 프란시스 쉐퍼(Francis Schaeffer)의 『예술과 성경 Art and Bible』(1995), 『기독교문화관 Christian View of Philosophy and Culture』(1994), 한스 로크마커(Hans Rookmaaker)의 『현대예술과 문화의 죽음 Modern Art and the Death of Culture』(1993), 『기독교와 현대예술 Art Needs no Justification』(1987), 『예술과 그리스도인의 생활 The Creative Gift』(1993), 진 에드워드 비스(Jene Edwards Veith, Jr)의 『그리스도인에게 예술의 역할은 State of the Arts』(1991), 『성도가 예술에 대해 가져야할 태도 The Gift of Arts』(1992) 등은 미술작품의 창작이 믿음의 고백을 넘어 이 믿음 위에 예술을 세우는 데에 길잡이 역할을 하였다. 대학에서 기독교미술에 관하여 체계적인 교육이 전무하다시피 했던 시기에 미술가들은 이런 서적을 접

하며 신앙과 예술을 통합시키고 그의 삶과 열정을 그리스도의 주되심 아래로 복속시켜야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각오를 새롭게 하게 되었다.

또한 1990년대에는 ‘한국기독교미술인선교회’와 ‘아트미션’이 창립되어 기독교미술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전자가 선교에 치중하고 후자는 예술과 신앙의 일치를 추구하는 차이점을 보였으나 기본적으로 성경의 정신을 온전히 예술에 투사하고자 힘썼다. 이로써 기존의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와 더불어 기독교미술의 외연이 확장되고 활동 폭 또한 넓어졌다.

1992년 창립된 한국미술인선교회는 보다 다이내믹한 문화사역이 눈에 띈다. 한국문화예술 총연합회의 선교회로 발족되어 미술인들을 선교하는데 중점을 둔 이 단체는 “미술전시회 개최뿐 아니라 전방위 문화 사역을 감당하는 단체로 자리매김을 해왔다.”(기독신문 2013.9.2일자. “한국미술인선교회 회원전 마쳐.”) 일반적으로 미술가들의 전시는 정기전과 특별전으로 구분된다. 미술단체라면 대체로 정기전에 주력하는 편이지만 한국미술인선교회의 경우 특별전에 더 주력하는 듯하다. 한국미술인선교회의 특별전은 재차 ‘자선전’과 ‘해외전’으로 구분되는데 <부랑인들을 위한 자선전>(1992)을 비롯한 십여건에 이르는데 자선전을 보면 선교회가 단순히 전시행사에 머문 것이 아니라 미술을 통한 나눔에 앞장서왔다는 것을 말해준다. 또한 한국미술인선교회는 여러 해에 걸쳐 해외전시를 펼쳐왔는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전시가 있다. <한국기독교인 미술전 2000>(2000, 독일 쾰른, 뤼넨), <방콕 복음신학교, 방콕 국제학교순회전>(방콕, 2001), <미전역 한인교회 순회전>(미전역, 2002), <미주한인이민 100주년 기념전>(하와이 NBC, LA 아스토갤러리, 2003), <한국인도수교 30주년 기념전>(뉴델리, 2003), <우즈베키스탄 우정의 예술제>(타쉬켄트 아트뮤지엄, 2004), <카자흐스탄 우정의 예술제>(카자흐스탄 아스타나, 2006), <태국전>(센트럴 월드, 2009), <국내외 미술인 선교회 방콕전시>(2010, 방콕 에스프라네이드) 등등. 한국미술인선교회의 또다른 사역으로는 참신하고 유능한 작가배출을 통한 후진양성과 저변확대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한국미술인선교회는 1993년부터 <대한민국기독교미술대전>을 매해 개최, 전국의 신진작가들을 발굴해왔다. 2015년까지 총 23회나 공모전을 개최해온 셈인데 한 단체가 이런 사업을 펴왔다는 사실은 이들이 문화선교를 실현하고 기독교 문화 창달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왔는지 보여준다.

1998년 창립된 ‘아트미션’은 기독교세계관의 퍼스펙티브 하에 교회와 세상이라는 이

분법을 지양하고, 이런 맥락에서 삶의 체계로서의 기독교, 즉 신앙과 예술의 통합이라는 비전을 표방하였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영토 안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모든 빛을 교회안에 가둬두는 것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감안한 듯 전시장소도 교회 내에 머물기보다는 인사동이나 사간동 등 사람들이 붐비는 곳을 택해왔다.

아트미션의 주요 사역은 크게 ‘미술행사’와 ‘포럼개최’로 요약된다. 미술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전람회는 그때마다 주제를 정하는 테마전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주요 전시를 알아보면 <마태 1-8>(1998), <함께하는 세상전>(2003), <원더풀 데이즈>(2005), <러블리 에디션>(2006), <거룩한 상상>(2007), <예술, 희락>(2008), <Footprint>(2008), <영혼의 정원>(2009), <4(For) You>(2009), <조이플>(2010), <사랑합니다>(2010), <뉴 호라이즌>(2011), <Arms of Grace>(2012), <길>(2013), <측은지에 - 심(心)>(2014), <이미지 & 비전>(2015)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아트미션의 특징 중 하나는 매달 모여 스터디를 하고 특정 주제에 대해 토론하는 세미나형식으로 개최해오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써 기독교미술가로서 예술가로서의 고민을 나누는 동시에 정체성을 굳건히 다지게 된다. 미술현장의 이슈를 점검하는 것은 매해 개최되는 크리스천아트포럼(C.A.F)에 잘 나타나 있다. 아트미션은 매해 여름 미술인들을 상대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단행본으로 출간해왔다. 아트미션이 그간에 기획한 주요 앤솔로지로는 『예술문화적 실재 찾기』(2006), 『현대미술 구축과 부패 사이』(2007), 『기독교와 예술의 충만 I』(2008), 『기독교와 예술의 충만 II』(2009), 『뉴 호라이즌』(2011), 『예술적 창조성과 영성』(2012), 『박수근 회화 새로 보기』(2014), 『이미지와 비전』(2015) 등을 들 수 있다.

아트미션이 이처럼 학술분야에 많은 공을 들인 것은 기독교 문화를 이땅에 정착시키고 하나님의 영역주권을 미술 분야에 확립하려는 그들의 열의와 적극성을 짐작케 한다. 자칫 기독교미술이 교회의 울타리에서 자족한다면 세상과 분리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중세교회와 같이 고립주의에 갇혀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은 성경의 정신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술을 통한 소통, 그로 인해 긴밀한 상호작용을 모색하는 문화적 추이와도 맞지 않다. 크리스천 작가가 시대적 소임을 다하기 위해선 기독교미술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의 예술에 대한 지속적이고도 심층적인 연구를 수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한편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는 1995년 창립 30년을 맞아 종로갤러리에서 협회전을

가졌고,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 30년사 1966-1995』를 발간하였다. 이 책자에는 그간 협회의 발자취를 점검하는 역대회장을 지낸 분들의 좌담회와 함께 역대 총무단의 회고, 여섯 편의 아티클을 게재하였다.¹⁵⁾ 이 책자에서 알 수 있듯이 이연호에 이어 정재규, 서봉남, 김병중, 박정근같은 미술인들이 기독교미술론의 바통을 이어받았음을 알 수 있다.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는 이후 홍보 및 연구에도 관심을 돌려 소식지 『그리스도 안에서』와 더불어 연구책자 『프로레게』(Pro Rege)를 지속적으로 발간해왔다. 특히 2005년 신설된 협회 산하 이론분과에서 『영광스러운 극장안에서』(2006), 『한국기독교미술의 흐름』(2007), 『창조질서의 재발견』(2009), 『종교개혁과 미술』(2011), 『한국현대기독교미술 50년』(2015) 등을 발간하였다.

2000년대는 상업화의 도도한 물결이 미술계를 강타한 시기이다. 전국을 뜨겁게 달군 아트페어의 열기 등 마켓의 바람이 어느 때보다도 거세게 불어 닥쳤다. ‘블루칩’, ‘고공낙찰가’, ‘아트펀드’, ‘미술품 투기’ 등 이름도 생소한 용어들이 요동쳤다. 가정생활, 부부관계, 자녀양육까지 시장의 섀범이 침범하더니 미술계까지 침범하기에 이른 것이다.

기독교미술가들 역시 상업화의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국내에서 개최된 거의 모든 전시가 아트페어형식으로 치러질 정도로 그 여파는 거셌다. 작가에게 마켓은 없애선 안될 장치이나, 여기서 말하는 ‘상업화’란 생계형 작품판매나 유통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에 의한 미술의 잠식을 의미한다. 즉 ‘미적인 가치’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윤’이 목적이 되는 예술기준의 대대적인 지각변동을 뜻하는 것이다. 2천년대 만치 가치의 역전과 비전의 빈곤이 우리 미술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을 받게 된 시기도 없을 것이다. 과거의 미술이 삶의 고양, 공감, 상상의 고취 등과 관련이 있었다면, 여기서는 오로지 얼마나 재화를 축적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 작품 판매량에 따라 예술을 판단하는 것은 결코 섬김과 나눔을 중시하는 성경의 정신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높은 수준과 가치로 끌어올려주는 고결함, 아름다움, 의미, 사랑, 자비와 같은 기독교적인 가치와 배치된다(Schaffer, 1996: 109). 그럴수록 하나님은 우리

15) 좌담회 참석자는 이연호, 홍종명, 김학수, 김기승, 이명의, 안동숙, 김영재, 윤영자, 이인실이며, 역대총무들의 회고로는 이명의의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 창립”, 김진화의 “기독교미술상 제정”, 홍덕선의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국제미술전”, 주요 논고로는 정재규의 “혼합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 실체와 문제점”, 김병중의 “새로운 전환을 위하여”, 박정근의 “기독교와 미술”, 이연호의 “한국개화기의 기독교미술”, 서봉남의 “한국기독교미술 30년”이 각각 수록되어 있다.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1995).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 30년사 1966-1995』. 서울: 예서원.

에게 주신 예술의 ‘구조적 법칙’(서성록, 2003)을 정확히 인식하고, 기독교인으로서 정체성을 잘 준수하는 가운데 공적인 측면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본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2천년대에 들어와 개교회 중심으로 기독교미술이 꾸준히 확산되어갔다. 각 교회에서는 미술인들을 중심으로 미술인선교회를 조직하고 전시회를 여는 등 문화사역에 적극성을 띠었다. 지구촌교회의 미술선교회, 온누리교회의 아트비전, 광림교회 미술인선교회, 사랑의 교회 미술인 선교회, 영락교회의 미술인선교회, 연합공동체 샘미술 선교회 등이 그러하다. 이들 단체는 교회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역과는 별개로 2012년 <대한민국 크리스천 아트피스트전>을 창립하여 매해 정기전을 가져오고 있다. ‘시각예술을 통한 문화사역’이라는 취지 아래 기독교미술에 대한 교계의 관심과 협력, 기독교미술인들의 정체성확립과 가치모색, 하나님의 주권 선포 등을 내세우면서 기독교미술의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¹⁶⁾ 이외에도 명성교회의 미술인선교회는 <바라(Bara)전>을 개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따라 창의적인 예술을 선보이는 정기전을 개최해오고 있다. 개최지도 교회 내외에서 아닌, 서울의 중심부에서 일반인과 함께 하는 예술의 가능성을 타진해가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아직은 일부 대형교회에 머물고 있긴 하지만, 최근의 움직임은 기독교미술이 21세기 교회사역의 주요 영역이 되었다는 사실을 반증해주는 것이다.

VI. 나가는 말

이상에서 우리는 기독교 미술 50년의 흐름을 짚어보았다. 초기의 기독교미술은 선교의 목적을 띠었기 때문에 등장인물이 한복을 입고 조선의 산천을 배경으로 하는 등 토착적 색채가 농후했으며, 해방 후 개별적으로 진행되어오던 기독교미술은 1965년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가 창립됨으로써 본격화되었고, 1980년대에는 잇단 해외진출과 김학수의 <예수의 생애>, 서봉남의 <영광>, 운영자의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탑 인물조각>, 김영길의 선교용 회화, 김병종의 <바보산수>가 제작되면서 기념비적인 작품

16) 김병호 (2013). “아트 인 크로스: 제2회 대한민국 크리스천 아트 피스트를 열며.” 『대한민국 크리스천 아트피스트 2013 KCAF』 카탈로그. 이 전람회에는 교회소속 미술인선교회 외에도 백석대학원 기독교미술선교회가 참여하고 있다.

들을 남기는 성과를 올렸다. 1990년대에는 문화운동적 성격을 띤, 일련의 청년미술단체와 한국미술인선교회, 아트미션이 속속 출현하면서 기독교미술의 흐름을 바꾼 시기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 흐름은 2천년대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간의 기독교미술의 발자취를 검토하면서 느낀 점을 몇 가지로 정리해보면 이리하다.

첫째, 한국기독교미술의 한 복판에는 반세기를 획한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가 있었으며, 한국기독교미술은 협회를 근간으로 해서 발전해왔다. 초창기 이연호, 정규, 홍종명, 황유엽, 이명희, 신영현, 김영재, 김은호, 김기창, 안동숙, 김학수, 김정숙, 윤영자, 최병상, 김기승, 이철경과 같은 쟁쟁한 미술가들이 첫 삽을 뜬 이후 현재는 그들의 숭고한 예술 정신을 후배미술가들이 이어가고 있다.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가 기독교미술운동의 물꼬를 튼 역사적인 ‘모태적 단체(오의석, 1996: 132-33)’라는 데에 누구도 이견(異見)을 제기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오랜 장거리 경주로 피곤이 누적된 탓일까? 근래에는 지친 기색을 엿볼 수 있는데 주된 원인으로서는 회원들의 노화에 따른 고령화를 들 수 있다. 세대교체는 협회가 안고 있는 당면과제가 아닐 수 없다. 창립멤버들이 상당수 소천하시고 그 자리를 후배작가들이 대신하고 있으나 그 분들조차 6, 70대가 주류를 이룬다. 경륜있는 작가들이 현역으로 계시기에 단체의 안정성을 기할 수는 있지만 한편으로 현실 문화에 적절히 대처하고 기독교적 문화 담론을 구상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를 노정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 협회가 몇 년 전부터 ‘청년작가 특별전’을 개최하여 신세대 작가들과의 만남에 나선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기독교영성과 실력을 두루 겸비한 젊은 작가들이 선배작가들의 뒤를 이어 기독교예술의 심화 및 확산을 위해 노력을 경주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그리스도의 생애를 다룬 작품이 한국적인 풍토에서 다루어졌다는 점이다. 운보 김기창이 6.25 전란 중에 제작한 <예수의 탄생> 연작은 예수님과 그가 살았던 시대의 상황을 한국의 인물과 풍속으로 바꾸어놓음으로써 기독교의 토착화를 충실히 반영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전쟁의 참화로 고통 받던 우리 민족에게 위로와 희망을 선사한 바 있다. 토착화의 관점은 이외에도 김학수와 정명희, 가톨릭의 장발, 배운성, 장우성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토착화의 시각은 긍정적인 측면을 지니는 것이 사실이지만, 기독교 미술의 논의가 과거의 차원에만 머문다면, 기독교미술이 지닌 미션을 다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럴 경우 성경의 정신을 현재적 삶의 지평에서 점검하고, 대속적 사랑과 살림, 인간의 회복, 생명의 가치와 같은 기독교 정신을 반영하는 데는 미치지 못

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기독교미술의 정착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일 뿐 예술가들이 추구해야할 궁극적인 목표로 간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토착화보다 더 큰 의제를 안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문화개혁’이란 문제이다.¹⁷⁾ ‘문화개혁’은 크게는 하나님 나라 건설의 일부로서 “기존의 예술을 성경적 진리에 비추어 변혁하는 일과 창조주의 뜻에 부합하는 새로운 예술을 창조하는 일(신국원, 2002: 201)”로 요약된다. 인간의 문화는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소외, 생명경시, 허무주의, 카오스 등 전혀 다른 방향으로 기울어졌다. 그럴수록 기독교 예술가들은 선한 창조계의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문화를 ‘구속의 새로운 원리’에 입각하여 재창조하는 문화창치기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는 점이 강조되는 현실이다(Wolters, 1992: 81). 예수님이 죄로 얼룩진 인간을 구속하셨듯이 예술도 구속을 받아야하며 이를 추진할 사명을 기독교예술가들에게 주셨다. 초기 한국의 미술가들이 기독교를 어떻게 문화적으로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했다면, 기독교가 뿌리내린 현실점에서는 기독교 예술이 우리 문화의 대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 시야를 넓혀 생각해볼 때 기독교미술이 일반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로부터도 관심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기독교미술의 발걸음이 더디게 느껴지는 것은 미술인들의 안이한 자세에도 원인이 있겠지만, 미술을 바라보는 교회의 시각에도 원인이 있다. 한국교회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성장을 이룩했지만 과연 문화적으로도 그같은 좋은 성적을 냈는지 곰곰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¹⁸⁾ 예나 지금이나 교인들은 문화와 담쌓고 지내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다시피 하다. 심지어 미술 자체를 불온시하거나 우상으로 여기는 잘못된 시각이 교계에 도사리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예술적 은사의 결과로 이해한 개혁주의적 관점과도 불일치한다(김영한, 1992: 205). 성도들이 예술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영역이라는 인식을 갖는다면, 그가 그림을 그리든 조각을 하든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것을 확인할 수

17) 니콜라스 월터스토프는 『정의와 평가가 입맞출 때까지』에서 종교를 ‘회피적(aversive) 종교’와 ‘형성적(formative) 종교’로 나누었는데 회피적 종교가 내세 지향적이라면, ‘형성적 종교’(세계 형성적 기독교 world-formative Christianity)는 “세상의 사회구조를 개혁하기 위해 진력한다는 점”을 손꼽는다. 세계를 형성하는 신앙은 그가 종사하는 문화를 변혁하여 회복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Wolterstorff, 2007: 21-56).

18) 짧은 역사 가운데서도 세계 제1의 장로교회, 세계 제1의 감리교회를 탄생시키고 세계 50대 대형교회 중 27개를 가진 놀라운 성장에 비해 기독교의 문화지표는 초라하기만 하다.

있을 것이다. 교회가 문화사역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면, 기독교 문화도 한층 성장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온갖 세계관이 충돌하는 문화전쟁에서 기독교 미술인들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맥켄지 연구센터(Mckenzie Study Center)의 웨슬리 허드(Wesley Hurd)는 미술이 반역적인 세속주의와 반기독교적 감정에 에워싸이게 된 이유를 그리스도인 자신이 기독교 하부문화와 계도정신에 바리게이트를 치고 안주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¹⁹⁾ 이는 매우 뼈아픈 지적이 아닐 수 없다. 세상 자체를 부정적으로 사고할수록 그것으로부터 자꾸 분리해 나오려는 욕구가 생기게 마련이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세계의 죄성 앞에서 움츠려든다면 우리가 그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켜야 할 과제는 그만큼 지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바로 그 세계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을 만큼 사랑하신 세계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이경직, 2004: 56). 미로슬라브 볼프(Miroslav Volf)는 『광장에 선 기독교』에서 기독교공동체의 예언자적 역할은 세상을 고치기 위해, 인간의 번영을 위해, 그리고 공공선을 위해 세상에 참여해야 하며 기독교정체성을 세상속으로 투사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 그들의 전존재를 통해 세상에 참여하는 공공성을 강조한 바 있다(Volf, 2014: 134). 이 말은 그리스도인 미술가들이 사회에서 예술에 참여할 때 성찰해볼만한 사유의 지점들을 제공해준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기독교미술은 무엇을 성취했으며 어떤 족적을 남겼을까?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기독교정신에 따라서 창작생활을 해온 작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 문화로 들끓었던 이 땅에 생명의 문화를 확립하고 그전에는 찾아볼 수 없는 ‘구속의 아름다움’을 제시해줄 수 있었다. 생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현저히 저하된 시대에 생명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그 가치를 인식하는 것이야말로 현대문화의 병폐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생명존중의 인식은 죽음에서 우리를 살리신 그리스도에 근거를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혼돈과 죽음의 문화를 구속함에 있어 밑바탕이 되는 필수적인 개념이 아닐 수 없다. 이렇듯 온갖 혼란한 상황속에서도 기독교 미술가들에게서 문화적 회복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직도 예술에 희망의 여지가 남아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19) <http://msc.gutenberg.edu/2001/02/the-artful-in-us-all/> 참조

참고문헌

- 김기창 (2002). 『바보천재 운보그림전』 도록. 국립현대미술관.
- _____ (1978). 『예수의 생애』. 서울: 경미문화사.
- 김남석 (1985). “네비우스 선교방법연구.” 『신학지남』. 206.
- 김병중 (2014). 『김병중 30년 생명을 그리다』. 전북도립미술관.
- 김병호 (2013). “아트 인 크로스: 제2회 대한민국 크리스천 아트 피스트를 열며.” 『대한민국 크리스천 아트피스트 2013 KCAF』 도록.
- 김영길 (1988). 『자다가 깰 때라』. 부산: 법률문화원. 341-362.
- _____ (1995). 『창세로부터 비유속에 감추인 성경의 비밀』. 부산: 법률문화원.
- 김영한 (1992). 『한국기독교문화신학』. 서울: 성광문화사. 476.
- 김학수 (1989). 『예수의 생애』.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 박수근 (2010). 『박수근 작품집』. 서울: 마로니에북스.
- 박은식 (1973). 『한국독립운동지혈사(1)』. 서울: 일우문고.
- 박정근 (1996). “기독교적 감성표현에 관한 연구 - 아시아 기독교미술을 중심으로.” 한국미술인선교회편. 『기독교와 미술』.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106.
- 박정세 (2010). “게일(J. Gale)의 『턴로력당』과 김준근의 풍속삽도.” 『신학논단』. 60.
- 방오석 (1976). “한국가톨릭미술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백낙준 (1973). 『한국개신교사』. 연세대학교출판부. 170.
- 서봉남 (1994). 『기독교미술사』. 서울: 집문당.
- _____ (2001). 『서봉남 성서화집, 창세기-요한계시록』. 서울: 도서출판 MIG.
- 서성록 (2004). 『한국현대회화의 발자취』. 문예출판사.
- _____ (2003). “H. 로크마커의 미술비평의 구조적 법칙.” 『미학예술학연구』. 18.
- _____ (2009). 『미술의 터치다운』. 서울: 예서원. 19-49.
- 손호현 (2009). 『아름다운과 악, 신학적 미학서설 1권』. 서울: 한들출판사.
-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 (1987). 『한국기독교와 예술』. 서울: 풍만.
- 송미숙. “후소회의 일본 강점기 활동.” 『미술사와 문화유산』 4. 133-169.
- 신국원 (1996). “기독교인의 문화이해.” 『신앙과 학문』. 1(2). 기독교학문연구회.
- _____ (2002). 『신국원의 문화이야기』. 서울: IVP.
- 아트미션 (2012). 『예술적 창조성과 영성』. 서울: 예서원.
- 안유림 (2008). “일제의 기독교 통제정책과 <포교규칙>.” 『한국기독교와 역사』. 29.
- 유복열 (1969). 『한국회화대관』. 서울: 문교원.

- 윤영자 (2011). 『나의 삶과 예술』. 월간 아트프라이스.
- 오광수 (2014). “김기창 탄생 백주년 기념전.” 『아트가이드』. 1월호.
- 오의석 (1992). “성경적 조형관.” 『통합연구』. 14.
- _____ (1993). “현대기독교미술과 세계관.” 『통합연구』. 18.
- _____ (1996). “창조, 타락, 구속의 미술 - 미술에 대한 기독교세계관의 조명.” 한국미술인선교회편. 『기독교와 미술』.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 이구열 (1992). 『근대한국미술사의 연구』. 서울: 미진사.
- _____ (2005). 『우리 근대미술 뒷이야기』. 서울: 돌베개. 128-29.
- 이만열 (2001). 『한국기독교와 민족통일운동』, 한국기독교 역사연구소.
- 이경직 (2004). “기독교세계관과 미술.” 『한국기독교와 기독교미술』. 백석저널. 6. 56.
- 이연호 (1986). “기독교와 미술.” 『기독교사상』. 336(12). 95.
- 이명의 (1995).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 30년 대담.”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 30년사』. 21.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
- 이연호 (1987). “한국기독교 미술과 과제.”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 『한국기독교와 예술』. 서울: 풍만. 153-157.
- _____ (1993). “한국기독교미술의 토착화.” 『통합연구』. 6(1).
- _____ (1990). “한국인이 그린 예수상.” 『신앙세계』. 4. 130.
- _____ (1991). 『한국 기독교미술에 있어서의 토착화 문제에 대한 비판적 연구』. Southern California Theological Seminary 박사학위논문.
- _____ (1995).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 30년 대담.”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 30년사』. 20.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
- 이은선 (2012). “한국장로교가 한국문화에 미친 영향.” 『한국장로교총회 설립 11주년 기념학술세미나 논문집』. 새문안교회. 254.
- 정복희 (1999). “20세기 한국기독교미술의 전개.” 『한국교회의 문화사역 맥 짚기』. 21세기기독교문화포럼 위원회 공개포럼 발제문. 동승교회.
- 정성은 (2007). 『한국 근대 미술에 나타난 그리스도교의 영향』. 성균관대학교.
- 정웅모 (2006). “그리스도교 미술에서 예수도상의 변천에 관한 고찰.” 『가톨릭신학과 사상』. 48.
- 정재규 (2004). “영광.” 『서봉남 작품집』. 서울: 진성문화사.
- 조현화 (2007). 『한국 현대기독교미술의 현황 및 시기별 특징연구-1950-1990년대 회화작품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84.
- 최태연 (2005). “한국의 전통회화와 기독교회화(2).” 『백석저널 8호』. 백석기독교회 논문집 8. 164-165.

-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 (1995).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 30년사 1966-1995』. 서울: 스페이스 신정.
- _____ (2005).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 40년사 1966-2005』. 서울: 스페이스 신정.
- _____ (2015). 『한국 현대기독교미술 50년』. 서울: 예서원.
- 한국미술인선교회편 (1996). 『기독교와 미술』.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 홍덕선 (1986). “한국기독교미술의 어제와 오늘, 백주년기념 한국기독교 미술성화대전을 마치고.” 『빛과 소금』. 2.
- 『국제기독교미술전 성화대전』 도록 (1985). 이스라엘문화원.
- Brand, H & Chaplin, A. Art and Soul, 김유리·오윤성 역 (2004). 『예술과 영혼-포스트모던 시대 예술의 역할과 예술가의 소명』. 서울: IVP.
- Eckhart. 김병중 역 (2014). “역사적 서정주의.” 『김병중 30년 생명을 그리다』. 전북도립미술관.
- Schaffer, F. Addicted to Mediocrity: 20th Century Christians and the Arts. 드버니아 자네트 토리역 (1996). 『창조성의 회복』.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 Schaeffer, F. Art and the Bible, 김진홍 역 (1995). 『예술과 성경』.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5.
- Volf, M. A Public Faith, 김명윤 역 (2014). 『광장에 선 기독교』. 서울: IVP.
- Wolterstorff, N, Until Justice and Peace Embrace, 홍병룡·강영안 역 (2007). 『정의와 평화가 입을 때까지』. 서울: IVP.
- Wolters, A. Creation Regained, 양성만 역 (1992). 『창조 타락 구속』. 서울: IVP.

Abstract

Development and Task of Korean Christian Art

Seong-Rok Seo (Andong National University)

‘Korean Christian Artists Association’ established by Korean artists in 1965 predates Christian in the Visual Arts (CIVA) of America established in 1979, and it has been playing a pivotal role in spreading and dispersing Christian visual arts. This study examined major issues and artists and how Korean Christian Artists Association played the leading role in the art circles by dividing the development of Korean Christian art in four periods such as the sprouting period, formative period, developing period, and expanding period in commemoration of the 50th anniversary of the association.

Early Christian art intensely exhibited indigenous tones such as depicting Jesus as the aristocrat wearing traditional hat and robe, and this trend has not changed much even after the liberation. Christian art began to develop in full with the establishment of ‘Korean Christian Artists Association’ in the mid 1960’s when the society started to overcome the aftermath of the Korean War and stabilize gradually and it gave births to monumental pieces such as <The Life of Jesus> by Hak-soo Kim, <Glory> by Bong-nam Suh, <Figures of the Tower Commemorating the Centennial Anniversary of Korean Church> by Young-ja Youn, missionary paintings by Kim Young-gil, and <Jesus the Fool> by Byung-jong Kim in the 1980’s alongside successive overseas activities. In the 1990’s the advent of a series of young artists’ associations in the nature of cultural movement and the associations composed of existing artists such as ‘Korea Artist Missionary Association’ and ‘Art Mission’ changed the streams of the Christian art; switching from subject centered tendency and sectism to the expression of whole person based on the Christian world view.

The conclusion suggested a few measures Korean Christian artists to establish artistic vision without losing the identity as a Christian in the age of collision between various discourses. First, the Christian art

circles need to cope with realistic culture through the shift in generations and be more active about developing Christian artistic discourse. Second, it is necessary to give more attention to cultural reformation and make efforts to bring Christian art to relief as a cultural alternative. Third, the Christian art will advance when artists and believers take a new perception about visual art. Fourth, it is necessary to develop publicness by participating in the world through the entire existence of Christian artists.

Key Words: Christian Art, Korean Christian Artists Association,
Culture Engagement, Order of Creation, Indigenization

